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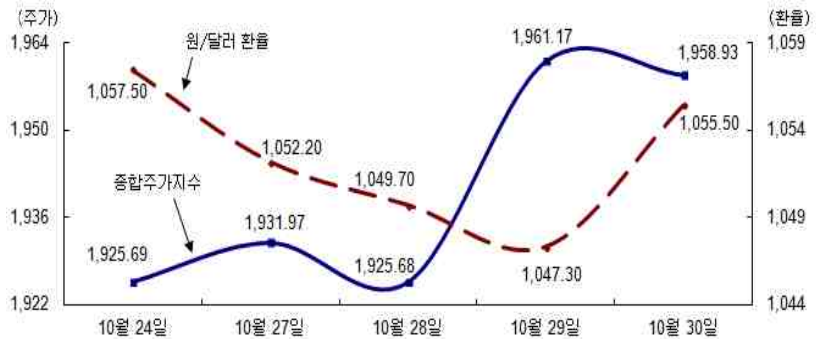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성장의 질' 의 OECD 국가 비교와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4~10.3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성장의 질’의 OECD 국가 비교와 시사점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천 구 선임 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성장의 질'의 OECD 국가 비교와 시사점

■ 개요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국민소득은 성장의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적으로 뛰어난 성장이란 성장률이 높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가운데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IMF의 QGI(Quality of Growth Index)를 활용하여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성장의 질' 지수는 크게 성장 펀더멘털(성장의 강도, 성장의 안정성, 다양한 성장 자원,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과 사회적 산출물(보건, 교육, 기회, 안전)로 구성된다.

■ '성장의 질' 지수의 추이

(성장의 질 지수)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는 순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성장의 질' 지수가 OECD 국가 중 2000~04년 24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18위로 금융위기 이후 유럽, 미국 등 OECD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성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 펀더멘털) '성장의 질' 지수 중 성장 펀더멘털 부문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은 성장 펀더멘털에서 OECD 국가 중 2000~04년 27위, 2005~09년 15위, 2010~13년 3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양적 성장과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었다. 한국은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성장의 강도에서 2000~04년 2위, 2005~09년 3위, 2010~13년 4위로 상위권이었다.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2000~04년 33위로 하위권에서 2005~09년 19위, 2010~13년 11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의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은 국민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소비증대, 빈곤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다양한 성장 자원에서 2000~04년 27위, 2005~09년 25위, 2010~13년 23위로 순위가 낮다. 우리나라는 수출 상품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주력 분야의 경쟁력이 훼손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회적 산출물) '성장의 질' 지수 중 사회적 산출물 부문은 정체 상태이다. 사회적 산출물은 OECD 국가 중 2000~04년 23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21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최근 보건, 교육

수준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한국은 보건에서 2000~04년 25위, 2005~09년 20위, 2010~13년 14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은 최근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 교육 부문에서 2000~04년 20위, 2005~09년 17위, 2010~13년 15위로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이다.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나라의 생산성 증대와 인적 자본 축적에 기여하므로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기회와 안전 분야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지니계수와 고용률로 비교한 기회 분야에서 2000~04년 22위, 2005~09년 24위, 2010~13년 21위로 순위가 낮았다.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때 인적자본의 축적과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안전 측면에서 2000~04년 31위, 2005~09년 31위, 2010~13년 30위로 하위권이었다. 경제발전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 <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 추이 >

	성장 펀더멘털		사회적 산출물		'성장의 질' 지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2000~04년	0.517	27위	0.535	23위	0.526	24위
2005~09년	0.554	15위	0.593	21위	0.573	21위
2010~13년	0.528	3위	0.637	21위	0.583	18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임.

#### ■ 시사점

우리나라는 성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높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장의 지속가능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한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 품목 다변화를 지속하고 차세대 주력수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인적자본의 질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경제주체들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확대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1. 개요

-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국민소득은 성장의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
  - 국민소득은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 국에서 실질GDP 성장률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
    -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인당 GDP가 1970년 약 275 달러에서 2013년에 25,975달러로 100배 가까이 증가
    -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약 8.6%, 1990년대 6.7%, 2000년대 4.7%로 고도성장을 기록
  - 하지만 실질GDP 성장률은 성장의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국민소득이 한 나라의 경제력은 측정할 수 있지만 삶의 질이나 행복 등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낼 수 없다고 주장<sup>1)</sup>
    - 현재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못함
    - 따라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가능성, 국민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 최근 IMF는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인 QGI(Quality of Growth Index)를 제안하였음
    - 질적으로 뛰어난 성장이란 성장률이 높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을 의미<sup>2)</sup>
    - QGI는 국가의 성장에 관한 요소들로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성장의 안정성, 산출물의 다양성, 수출의 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
    - 여기에 보건, 교육 등 사회적 결과물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의 질'을 측정
- 본 보고서에서는 IMF의 QGI를 활용하여 한국의 '성장의 질'을 산출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 후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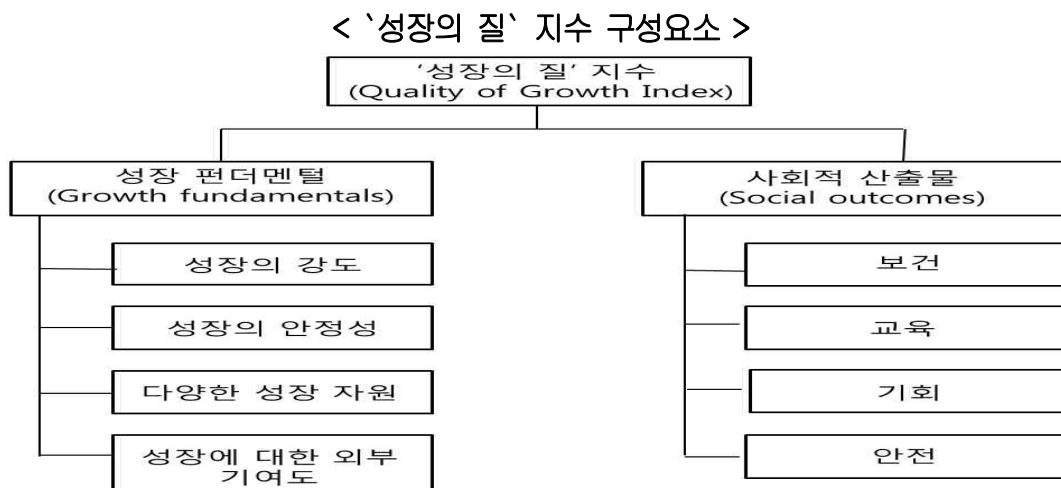
1)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2) IMF (2014), "A Quality of Growth Index for Developing Countries".

## 2. '성장의 질' 지수의 개념 및 산출 방법

○ ('성장의 질' 지수의 산출 방법) '성장의 질' 지수는 성장에 관련된 지표와 사회적 산출물에 관련된 지표들을 표준화 시킨 후 가중 평균하여 산출

- '성장의 질' 지수는 성장에 관련된 지표와 사회적 산출물에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
  - '성장의 질' 지수는 크게 성장 펀더멘털과 사회적 산출물로 구성
  - IMF의 QGI(Quality of Growth Index)<sup>3)</sup>지수의 성장 관련 세부 요소는 성장의 강도, 성장의 안정성, 다양한 성장 자원,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등 4가지이며 사회적 산출물의 세부 요소는 보건, 교육, 기회 등 3가지 요소임
  - 여기에 안전에 관련된 지수를 사회적 산출물 부문에 추가적으로 고려



- 각 구성요소의 항목들을 표준화 시킨 후 가중 평균하여 '성장의 질' 지수를 산출
  - 각 지표는 LSM 표준화 지수<sup>4)</sup>를 이용하여 표준화시킴
  - 8가지 세부지표들의 가중치는 모두 동일한 가중치인 0.125를 적용
  - '성장의 질' 지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성장의 질이 높음

### < '성장의 질' 지수 산출식 >

$$\begin{aligned}
 \text{QGI} &= \text{성장 펀더멘털} + \text{사회적 산출물} \\
 \text{성장 펀더멘털} &= \gamma_1 \text{성장의 강도} + \gamma_2 \text{성장의 안정성} + \gamma_3 \text{다양한 성장 자원} + \gamma_4 \text{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
 \text{사회적 산출물} &= \delta_1 \text{보건} + \delta_2 \text{교육} + \delta_3 \text{기회} + \delta_4 \text{안전}
 \end{aligned}$$

3) IMF(2014), "A Quality of Growth Index for Developing Countries".

4) LSM 표준화 지수 = (실제값 - 최소값) / (최대값 - 최소값).

○ ('성장의 질' 지수의 구성요소) 성장 펀더멘털의 세부 요소는 성장의 강도, 성장의 안정성, 다양한 성장 자원,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등 4가지이며, 사회적 산출물의 세부 요소는 보건, 교육, 기회, 안전 등 4가지로 구성

- 성장의 강도(Strength) : 성장의 강도는 개인의 삶과 좀 더 밀접한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증감률로 측정됨
- 성장의 안정성(Volatility) : 성장의 안정성은 지난 5년간 1인당 실질 GDP 증감률의 표준편차를 구한 후 역수를 취하여 측정
- 다양한 성장 자원(Sectoral composition) :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각 국가의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를 구한 후 1-허핀달 지수로 측정
-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Demand composition) :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측정을 위하여 실질GDP 성장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대리변수로 측정
- 보건(Health) : 기대수명과 각 국가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인 영아사망률을 이용하여 국가의 보건 수준을 측정
- 교육(Education) : 각 국가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각 국가의 평균 교육연수를 대리변수로 사용
- 기회(Opportunity)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인 지니계수와 고용의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률로 비교
- 안전(Safety) : 안전과 관련된 지표로 사고부문을 나타내는 도로사망률과 범 죄 측면을 나타내는 살인율로 비교

< 지표 구성 체계 >

	구분	대리변수	출처
성장 펀더 멘털	성장의 강도	1인당 실질GDP 성장률	World Bank
	성장의 안정성	과거 5년간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의 표준편차	자체 계산
	다양한 성장 자원	품목별 수출 자료의 허핀달 지수	자체 계산
	성장 에 대 한 외 부 기 여 도	GDP 대비 순수출 기여도	OECD
사회적 산출물	보건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World Bank
	교육	평균 교육연수	World Bank
	기회	지니계수, 고용률	OECD
	안전	도로사망률, 살인율	OECD, UNDP

### 3. '성장의 질' 지수의 추이

#### ① '성장의 질' 지수 및 종합평가

○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 항목 중 사회적 산출물 부문의 개선 속도가 성장 펀더멘탈에 비해 크게 미흡

- 한국의 2000년 이후 '성장의 질' 지수는 OECD 34개국 중 중위권 수준인 18위로 평가되며, 최근 '성장의 질' 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
  -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2000~04년 24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18위로 순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
  - 금융위기 이후 유럽, 미국 등 OECD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성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
- 한국 '성장의 질' 지수 중 성장 펀더멘탈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적 산출물 부문은 정체 상태
  - 한국은 성장 펀더멘탈에서 OECD 국가 중 2000~04년 27위, 2005~09년 15위, 2010~13년 3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향상
  - 하지만 사회적 산출물에서 OECD 국가 중 2000~04년 23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21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무름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며 성장 펀더멘탈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사회적 산출물에서 성과가 미약

<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 추이 >

	성장 펀더멘탈		사회적 산출물		'성장의 질' 지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2000~04년	0.517	27위	0.535	23위	0.526	24위
2005~09년	0.554	15위	0.593	21위	0.573	21위
2010~13년	0.528	3위	0.637	21위	0.583	18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임.



② 부문별 평가

○ (성장 펀더멘털) 성장의 강도, 성장의 안정성,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측면은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은 하위권에 머무름

- 성장의 강도 : 한국은 성장의 강도 측면에서 OECD 34개국 중 4위
  - 한국은 성장의 강도 측면에서 2000~04년 2위, 2005~09년 3위, 2010~13년 4위로 상위권이지만 순위는 다소 하락하고 있음
  - 한국의 2000~2013년 동안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평균은 3.9%였으며 가장 높았던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동 기간 동안 4.7% 성장
  -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는 국민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소비증대, 빈곤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성장의 안정성 : 한국은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OECD 34개국 중 11위
  - 한국은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IMF 위기 이후인 2000~04년 33위로 하위권에서 2005~09년 19위, 최근 2010~13년 11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겪으며 성장이 불안정 하였지만 최근에는 성장 안정성이 향상됨

< 주요국 성장의 강도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2위	3위	4위
미국	22위	29위	12위
영국	14위	30위	21위
독일	30위	15위	6위
프랑스	26위	28위	19위
일본	27위	32위	11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주요국 성장의 안정성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33위	19위	11위
미국	6위	11위	12위
영국	4위	4위	19위
독일	7위	24위	23위
프랑스	12위	6위	10위
일본	19위	7위	25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다양한 성장 자원** : 한국은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에서 OECD 34개국 중 23위로 성장 자원이 특정 분야에 집중
  - 한국은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에서 2000~04년 27위, 2005~09년 25위, 2010~13년 23위로 지속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수출 상품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 지수는 2000~2013년 평균 0.165로 일부 상위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음
  - 우리나라는 수출 상품이 상대적으로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인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되며 수출 주력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음
  
-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 한국은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측면에서 OECD 34개국 중 13위를 기록
  - 한국은 성장 외부 기여도 측면에서 2000~04년 7위, 2005~09년 5위, 2010~13년 13위로 상위권이지만 최근 순위는 다소 하락
  - 한국의 순수출 기여도는 분석기간 평균 0.42%p로 국내 성장에 외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국은 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아 선진 기술의 유입, 지식의 이전, 경쟁의 긍정적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등의 경로를 통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임

< 주요국 다양한 성장 자원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27위	25위	23위
미국	17위	13위	10위
영국	15위	17위	16위
독일	23위	19위	18위
프랑스	7위	4위	3위
일본	30위	29위	26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주요국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7위	5위	13위
미국	26위	12위	24위
영국	28위	14위	21위
독일	5위	18위	11위
프랑스	21위	30위	17위
일본	12위	17위	25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사회적 산출물) 보건, 교육 부문은 OECD 34개국 중 중위권 수준이며, 기획, 안전 분야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름

- **보건** : 한국은 보건 분야에서 OECD 34개국 중 14위
  - 한국은 보건 측면에서 2000~04년 25위, 2005~09년 20위, 2010~13년 14위로 순위가 중하위권에서 최근 중위권까지 향상
  - 한국의 기대수명은 분석기간 평균 78.9세, 영아사망률은 영아 1,000명당 4.4명을 기록하였으며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으로 82.3세,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2.3명이었음
  - 다만 최근에 한국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교육** : 한국은 교육 분야에서 OECD 34개국 중 15위
  - 한국은 교육 측면에서 2000~04년 20위, 2005~09년 17위, 2010~13년 15위로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
  - 한국의 분석 기간 동안 평균 교육연수는 11.4년이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평균 교육연수가 긴 국가는 미국으로 12.8년이었음
  -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나라의 생산성 증대와 인적 자본 축적에 기여하므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여전히 필요

< 주요국 보건 부문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25위	20위	14위
미국	26위	28위	29위
영국	19위	25위	23위
독일	14위	15위	18위
프랑스	9위	9위	9위
일본	1위	2위	3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주요국 교육 부문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20위	17위	15위
미국	1위	1위	1위
영국	7위	9위	7위
독일	14위	3위	1위
프랑스	24위	24위	23위
일본	19위	20위	20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기회 : 한국은 기회 분야에서 OECD 34개국 중 21위로 순위가 낮아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한국은 기회 측면에서 2000~04년 22위, 2005~09년 24위, 2010~13년 21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음
  -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경제 주체들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때 인적자본의 축적과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안전 : 한국은 안전 분야에서 OECD 34개국 중 30위로 순위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은 안전 측면에서 2000~04년 31위, 2005~09년 31위, 2010~13년 30위로 지속적으로 순위가 낮았음
  - 한국은 도로사망률과 범죄로 인한 사망 등 안전에 관련된 지표들이 OECD 국가 대비 좋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 건물의 고층화, 지하화, 생활수준의 향상, 자동차 증가 등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한 반면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이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

< 주요국 기회 부문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22위	24위	21위
미국	19위	26위	28위
영국	15위	16위	19위
독일	12위	13위	9위
프랑스	17위	21위	20위
일본	18위	20위	17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주요국 안전 부문 비교 >

국가명	2000~04	2005~09	2010~13
한국	31위	31위	30위
미국	33위	33위	33위
영국	3위	4위	2위
독일	8위	8위	12위
프랑스	20위	14위	15위
일본	5위	6위	9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34개국 중 순위.

#### 4. 시사점

-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가능성,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한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할 필요
    - 단기적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R&D투자 확대, 제조업 국내 유턴 유인, 관광·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투자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 약화에 대비하여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업애로계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노동력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등도 모색
  - 경기 변동 폭 완화를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절히 활용
    -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재정정책의 적시성과 재원충당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 통화정책도 경제관련 정보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
  - 수출 품목 다변화를 지속하고 차세대 주력수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 지역별, 품목별로 수출 다변화를 지속하여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수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
    - 현재 주력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차세대 주력제품의 개발과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
  -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 투자에 대한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엄격한 성과관리를 병행

- 경제주체들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확대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
  - 정부와 민간기업 공동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계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노력
  
-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5)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
  - 인프라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자원 관련 인프라', '철도 관련 인프라', '산업단지 인프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체 투자6)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2072-6211, ck1009@hri.co.kr)

5) 현대경제연구원(2014),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

6) 현대경제연구원(2013),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 부록-1 > IMF '성장의 질' 지수(Quality of Growth Index)

○ ('성장의 질' 지수의 구성요소) 성장 펀더멘털의 세부 요소는 성장의 강도, 성장의 안정성, 다양한 성장 자원,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 등 4가지이며, 사회적 측면의 세부 요소는 보건, 교육, 기회 등으로 구성

① 성장 펀더멘털(Growth Fundamentals)

- **성장의 강도(Strength)** : 국가의 성장 강도는 소득 향상으로 인한 소비 증대, 빈곤 해소 등에 기여하므로 '성장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sup>7)</sup>
  - 성장의 강도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실질GDP 성장률 대신 개인의 삶과 좀 더 밀접한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증감률로 측정됨
- **성장의 안정성(Volatility)** : 성장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개인의 소비, 기업들의 투자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춤
  - 성장 변동성이 높은 나라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훼손되며 가계와 기업들의 리스크가 높아져 소비와 투자 등이 감소함<sup>8)</sup>
  - 성장의 안정성은 지난 5년간 1인당 실질 GDP 증감률의 표준편차를 구한 후 역수를 취하여 측정
- **다양한 성장 자원(Sectoral composition)** : 국가의 성장 자원이 다양하지 못하면 외부충격에 취약하며 성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
  -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각 국가의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sup>9)</sup>를 구한 후 1-허핀달 지수로 측정
  -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낮으면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되며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짐<sup>10)</sup>

7) Dollar, D., T. Kleineberg, and A. Kraay, 2013, "Growth is Still Good for the Poo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568.

8) Barlevy, G., 2004, "The Cost of Business Cycles under Endogenous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4, No. 4, pp. 964-90.

9)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는 품목별 수출 비중의 제곱을 합한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상위 품목에 대한 집중도 또는 의존도가 높음을 나타냄.

10) Papageorgiou, C., and N. Spatafora, 2012, "Economic Diversification in LICs: Stylized Facts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No. SDN/12/13 .

-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Demand composition) : 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기여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성장률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sup>11)</sup>
  -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수출은 선진 기술의 유입, 지식의 이전, 경쟁의 긍정적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등의 경로를 통해 거시 측면의 성장률과 미시 측면의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 단 성장의 높은 외부 의존도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sup>12)</sup>
  - 성장 외부 기여도 측정을 위하여 실질GDP 성장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리변수로 측정

## ② 사회적 산출물(Social Outcomes)

- **보건(Health)** : 국민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수록 인적 자본이 향상
  - 기대수명과 각 국가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인 영아사망률을 이용하여 국가의 보건 수준을 측정
- **교육(Education)** :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나라의 생산성 증대와 인적 자본 축적에 기여
  - 게리 베커에 따르면 개인이 받는 교육과 훈련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같은 투자 성격을 지니며 학교 교육은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
  - 각 국가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각 국가의 평균 교육연수를 대리변수로 사용
- **기회(Opportunity)** : 경제 주체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때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얼마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불평등도와 고용의 기회로 나누어 측정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측정
  - 고용의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사용되는데 본 고에서는 국가별 고용률로 비교

11) Diao, X., J. Rattsø, and H. E. Stokke, 2006, "Learning by Exporting and Structural Change: A Ramsey Growth Model of Thailand",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28, pp. 293-306.

12) 이러한 문제는 인덱스 안에 성장의 변동성 항목을 통하여 해결.



< 부록-2 > OECD국가의 ‘성장의 질’ 지수

< OECD국가의 ‘성장의 질’ 지수 비교 >

순위	2000~04년		2005~09년		2010~13년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1	스웨덴	0.631	스웨덴	0.644	스웨덴	0.652
2	슬로베니아	0.623	스위스	0.638	스위스	0.637
3	덴마크	0.614	영국	0.627	독일	0.635
4	영국	0.613	네덜란드	0.624	덴마크	0.632
5	호주	0.610	덴마크	0.621	네덜란드	0.626
6	스위스	0.609	호주	0.619	영국	0.615
7	네덜란드	0.605	일본	0.618	호주	0.612
8	독일	0.596	독일	0.617	일본	0.608
9	뉴질랜드	0.590	캐나다	0.617	슬로베니아	0.602
10	체코	0.582	뉴질랜드	0.614	아이슬란드	0.600
11	캐나다	0.579	슬로베니아	0.614	룩셈부르크	0.596
12	일본	0.579	체코	0.600	이스라엘	0.596
13	미국	0.572	프랑스	0.599	뉴질랜드	0.594
14	룩셈부르크	0.567	오스트리아	0.596	오스트리아	0.592
15	프랑스	0.564	룩셈부르크	0.591	캐나다	0.587
16	오스트리아	0.563	아이슬란드	0.584	프랑스	0.587
17	아이슬란드	0.558	스페인	0.582	체코	0.583
18	헝가리	0.556	핀란드	0.578	한국	0.583
19	아일랜드	0.554	아일랜드	0.576	핀란드	0.582
20	핀란드	0.551	벨기에	0.576	벨기에	0.574
21	벨기에	0.550	한국	0.573	아일랜드	0.574
22	노르웨이	0.550	이스라엘	0.569	폴란드	0.574
23	그리스	0.546	미국	0.566	스페인	0.556
24	한국	0.526	슬로바키아	0.555	에스토니아	0.555
25	슬로바키아	0.526	이탈리아	0.550	노르웨이	0.552
26	이탈리아	0.523	폴란드	0.548	미국	0.552
27	스페인	0.518	노르웨이	0.545	이탈리아	0.550
28	이스라엘	0.514	헝가리	0.538	슬로바키아	0.550
29	폴란드	0.513	에스토니아	0.535	포르투갈	0.523
30	에스토니아	0.495	그리스	0.535	헝가리	0.518
31	포르투갈	0.480	포르투갈	0.512	그리스	0.490
32	칠레	0.424	칠레	0.433	칠레	0.434
33	멕시코	0.379	멕시코	0.407	터키	0.426
34	터키	0.354	터키	0.384	멕시코	0.39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0월 23일	10월 30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27	2.31	0.04%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8.27	109.21	0.94¥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646	1.2613	-0.0033\$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678	17,195	517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139	15,658	51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22	2.20	-0.02%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56.1	1,055.5	-0.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31.7	1,958.9	27.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0월 23일	10월 30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82.24	81.09	-1.15\$
	Dubai	107.99	100.38	107.88	83.25	84.82	1.57\$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73.09	273.37	0.2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6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